

우란분재의 의미와 設行 역사

김상영
중앙승가대학교

- I. 머리말
- II. 『우란분경』과 우란분재
 - 1. ‘우란분’의 語義
 - 2. 『우란분경』과 우란분재의 設行
- III. 고려시대의 우란분재
- IV. 조선시대의 우란분재와 백중
 - 1. 우란분재와 백중
 - 2. 조선시대 우란분재의 특성
- V. 맺음말

盂蘭盆齋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 불교의례 행사이며, 무려 1,500년에 가까운 선행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란분제는 각 지역의 문화, 사상 등과 융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우란분제의 의미와 선행 역사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우란분(烏藍婆拏, ullambana, 倒懸)의 어원 연구는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우란분제의 성격을 전하는 『우란분경』은 매우 짧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뚜렷한 구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필자는 이 경의 중간 부분, 즉 「自恣日 공양과 목련 어머니의 구제」에 관계된 내용을 특히 주목하고자 하였다. 안거를 마친 수행대중의 자자일에 공양을 올리고, 수행대중은 공양을 올린 施主家와 7세 부모를 위해 축원을 한다는 우란분제 齋의 형태가 여기에서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우란분제의 선행 시기와 성격을 정리한 이후 본문에서는 우

리나라 우란분제의 선행 역사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우란분제는 고려시대 선행 기록, 즉 『大覺國師文集』에 실려 있는 관련 기록이 시 가장 앞선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의 우란분제 역시 삼국시대부터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 우란분제는 왕실과 사찰 등에서 꾸준히 선행되었으며,孝의 선양이라든가 自恣, 수행 승려들에 대한 공양 등의 우란분제와 관련한 기본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후 우란분제는 百中과 함께 선행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백중은 중국, 일본 등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한국 고유의 민속행사에 속한다. 우란분제는 조선 초기부터 百種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우란분경』의 百味, 즉 음식이나 과일의 개념으로 파악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우란분제에서 自恣라든가 수행 승려들에 대한 공양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우란분제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중 중심의 민간제이나 민속놀이로 그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상천도라는 특정 형태의 제의만 강조되는 모습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주제어

우란분제, 우란분제의 어원, 『우란분경』, 고려시대 우란분제,

백중, 조선시대 우란분제

첫째, 우란분재의 기원과 『佛說盂蘭盆經』(이하 『우란분경』으로 칭함) 『目連經』 등의 우란분재 관련 경전을 주목하는 연구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일본 학자들이 주도해왔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우란분재와 관계된 역사적 경전적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밝혀지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란분’의 어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우란분재에 담겨있는 사상성을 주목하는 연구다. 『우란분경』과 우란분재는 불교 뿐만 아니라 인도의 전통사상, 유교의 효사상, 도교의三元思想 등과 사상 의례면에서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셋째, 우란분

岩本 裕, 「目連傳説と盂蘭盆」, 『佛敎説話研究』 第4巻, 地獄めぐりの文學(東京:開明書店, 1979)

岩本 裕, 「盂蘭盆の原語とその史的背景」, 『地獄の世界』(北辰堂, 1990)

藤井正男, 「盂蘭盆と民俗」, 『講座日本民俗宗教』 2 仏敎民俗學(弘文堂, 1980)

金岡照光, 「敦煌本『盂蘭盆經』雜感—盂蘭盆會と目連變文に關して」, 『道教と宗教文化』(平河出版社, 1987)

阿 理生, 「盂蘭盆會の源流と盂蘭盆の原語について」, 『印度學仏敎學研究』 93(47—1)(東京:印度學仏敎學會, 1998)

吉岡義豊, 「中元盂蘭盆の道敎的考察」, 『道教と佛敎』 第二(東京:國書刊行會, 1976)

吉岡義豊, 「盂蘭盆經 · 目連變の元型話について」, 『吉岡義豊著作集』 第2巻(五月書房, 1989)

入澤 崇, 「佛説盂蘭盆經成立考」, 『仏敎學研究』 45(京都:龍谷大學仏敎學會, 1990)

川崎 ミチコ, 「敦煌文書に見る盂蘭盆について(一)」, 『東洋大學文學部紀要』 2, (東京:東洋大學文學部中國哲學文學科, 1994)

蕭登福, 「第6章 道敎中元節對佛敎『盂蘭盆經』及目連傳説的影響」, 『道教與佛敎』(臺北:東大圖書公司, 1995)

藤村 安芸子, 「行としての盂蘭盆會『三寶繪』の統一的理解を通じて」, 『倫理學紀要』 10(東京: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倫理學研究室, 2000)

松村 巧, 「盂蘭盆と‘中元」, 『唐代の宗教』(京都:朋友書店, 2000)

五明遠, 「中國五 · 六世紀盂蘭盆會之探源」(臺北:國立台灣大學 歷史研究所 碩士論文, 2001)

横田 隆志, 「‘三寶繪’下巻‘盂蘭盆’考」, 『仏敎文學』 26, 2002

I. 머리말

매년 음력 7월 15일에 봉행되는 盂蘭盆齋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 불교의례 행사이다. 우란분재라는 이름의 제의가 행해진 기록은 중국 梁武帝大同 4년(538)에 처음 보이고 있으므로, 우란분재는 무려 1,500년에 가까운 설행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란분재는 각 지역의 문화, 사상 등과 융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우란분재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¹⁾

1)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주로 참고한 외국 학자의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池田澄達, 「盂蘭盆經に就いて」, 『宗教研究』 新3—1, 1926

清水谷恭順, 「佛説盂蘭盆經解題」(『國譯一切經』, 1934)

横山文綱, 「盂蘭盆考」, 『禪學研究』 49(無相大師六百年遠忌記念, 1959)

岩本 裕, 『目連傳説と盂蘭盆經』(東京:法藏館, 1965)

岩本 裕, 「盂蘭盆の原語について」, 『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仏敎學論集』(東京, 1966)

재와 관련한 민속이러든가 제반 문화 현상 및 그 결과물에 대한 연구다. 한국의 백중놀이러든가 중국의 ‘目連戲’, 일본의 ‘お盆’ 등은 우란분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과 관계된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만큼 상당 양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甘露圖는 조선시대 불화의 독특한 양식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왔는데, 감로도에 그려진 내용이 곧 『우란분경』과 우란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²⁾

모든 문화와 종교 현상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문화와 종교 현상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필자는

2) 우란분재와 관련한 국내 연구 성과는 민속학과 국문학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史在東은 총 32편의 논문이 수록된 『孟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대전:중앙인문사, 2000)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목련 전승과 관계된 한국과 중국 학자들의 연구물이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주로 참고한 국내 학계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구 미래, 「백중과 우란분재의 발생기원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25(안동:비교민속학회, 2003)
 김 성순, 「동아시아의 우란분절 수용에 나타난 의미의 확대와 변용 양상—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주고받음’의 축제—」, 『종교연구』 50(익산:한국종교학회, 2008)
 김 영주, 「孟蘭盆經變相」, 『孟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대전:중앙인문사, 2000)
 김 홍우, 「우란분재의 연극 연희화 방안」, 『연극교육연구』 1(서울:한국연극교육학회, 1997)
 서 석제, 「당대 우란분회의 전개와 불교의 유·도·교 수용」, 『중국고중세사연구』 12(서울:중국고중세사학회, 2004)
 오 현화, 「불교축제로서의 우란분재」, 『어문학교육』 제24집(한국어문교육학회, 2002)
 이 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서울:한국민속학회, 1993)
 이 시준, 「平安時代における孟蘭盆會の考察」, 『日本文化學報』 34(대전: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이 창식, 「불교민속과 세시풍속」, 『불교민속학의 세계』(서울:집문당, 1996)
 장 춘석, 『目連說話新論』(서울:경인문화사, 2001)

지금 한국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란분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란분재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상당 부분 이탈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우란분재의 의미와 그 설행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논문의 주제가 워낙 광범위한 것이어서 본문 구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II. 『우란분경』과 우란분재

1. ‘우란분’의 語義

불교 경전의 漢譯 과정에서는 수많은 音寫語와 意譯語들이 탄생하였다. 이에 불교학 연구자들은 이들 어휘의 본래 뜻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른 시기부터 『翻梵語』(5세기 경) 『梵語千字文』(7세기 말, 義淨) 등의 사전이 편찬되었으며, 색인집에 해당하는 音義類 저술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역 어휘는 지금껏 原義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다. 우란분재 또는 『우란분경』의 기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孟蘭盆’은 그 대표적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우란분의 原語가 무엇인가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 일본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복잡해져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란분의 어원을 규명하는 작업은 곧 우란분재의 성격과 『우란분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

다. 이로 인해 우란분 어원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인도, 중국, 중앙 아시아 등의 언어는 물론이고 그들 지역의 사상과 전통제의, 문화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의 성격상 그동안 진행된 논쟁의 결과와 내용을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문제는 필자의 학문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다만 우란분의 어의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하며, 먼저 『一切經音義』에 실려 있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란분. 이 말은 와전된 말이다. 바르게 말하면 烏藍婆拏라고 해야 하는데, 이곳 말로 번역하면 倒懸이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西國의 법에는 대중 스님들이 自恣日에 공양을 성대하게 갖추어 시설해 놓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받들어 올리고는 선망 부모가 거꾸로 매달린 듯이 겪는 고통을 구원하고자 기도한다고 한다. 저들의 外書에 말하기를 “먼저 가신 조상에게 죄가 있으면 집안에 대가 끊겨서 자손이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르침을 청하지 않으면 (先亡들은) 귀신들의 세계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비록 세속의 법을 따르고 또한 제사 의식을 시설하셨지만, 이것은 곧 삼보의 복전 가운데에서 공덕을 크게 일으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옛 번역에서는 우란분을 음식을 담은 그릇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³⁾

3) 孟蘭盆 此言訛也 正言烏藍婆拏 此譯云倒懸 案西國法 衆生自恣之日 盛設供俱 奉施佛僧以救先亡倒懸之苦 以彼外書云 先亡有罪 家復絕嗣 無人祭神請教則 於鬼處受倒懸之苦 佛雖順俗 亦設祭儀 乃教於三寶田中 深起功德 舊云 孟蘭盆是貯食之器 此言誤也(『縮

玄應은 貞觀 연간(627—649) 말경에 왕의 명을 받아 『일체경음의』를 편찬하였다. 그는 위 자료에서 보이듯이 우란분은 와전된 말이며 ‘烏藍婆拏’라는 말이 옳다고 하였다. 또한 그 뜻은 ‘倒懸’ 즉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현웅의 이같은 설명은 이후 우란분의 어원과 관련한 기본적 자료로 인식되었으며, 각종 사전류에도 우란분의 어원은 烏藍婆拏(ullambana)라는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같은 현웅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각각 그 어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와 관련한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ullambana의 어원을 밝히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⁴⁾ 入澤 崇은 『우란분경』 등의 분석을 통해 그릇으로서의 ‘盆’을 주목하면서 ‘우란분’ 전체가 중국어에서 유래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⁵⁾ 여하튼 우란분의 어원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란분경』과 우란분재를 이해하는 관점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다.

册藏經』爲6, 58右. 爲7, 56左)

『일체경음의』의 이 내용은 『大正藏』 54, 535b에도 전하고 있으나 『縮册藏經』의 내용과 다소 다르다. 일본 학자들은 대부분 『縮册藏經』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4) 入澤 崇은 「佛說孟蘭盆經成立考」(앞의 책)에서 우란분의 어원에 대한 諸說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후 阿 理生은 우란분의 어원이 pravāraṇa(받들다, 또는 보시물을 받들기 위한 그릇)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총 여섯 가지 유형의 해석이 제기된 셈이다(「孟蘭盆會の源流と孟蘭盆の原語について」, 앞의 책). 入澤 崇이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ullambana (S.) 倒懸 (南條文雄·荻原雲來·池田澄達) ②ullampāna (P.) 救濟 (高楠順次郎·干瀉龍祥)

③urvan (ソグド語) 靈魂 (岩本裕) ④ulavāna 天順を回復した者 (井本英一) ⑤hufwardān 故人にゆかりの行事 (伊藤義教)

5) 入澤 崇, 「佛說孟蘭盆經成立考」, 같은 책

2. 『우란분경』과 우란분재의 설행

이른바 目連救母說話라든가 우란분재의 의의를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 『우란분경』 『報恩奉盆經』 『灌臘經』 『정도우란분경』 등 4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보은봉분경』은 『우란분경』의 전반부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우란분경』의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다. 이로 인해 두 경전의 성립 시기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우란분경』이 먼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은봉분경』은 일종의 抄出本에 해당한다.

반면, 『보은봉분경』이 먼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에 의하면 『우란분경』은 『보은봉분경』을 확대 부연하여 성립된 경전이 된다. 두 경전에 등장하는 용어라든가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보면 후자, 즉 『보은봉분경』이 먼저 성립되었다는 설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두 경전이 서로 다른 인물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번역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타당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灌臘經』은 『出三藏記集』 등의 자료에서 『우란분경』 『보은봉분경』과 同本異譯으로 표기되기도 하였으나 경전의 내용은 분명 다르다. 『정도우란분경』은 殘卷이 돈황문서(펠리오본 2185)에서 발견된 바 있는데, 『우란분경』을 확대 부연한 것으로 당나라 중기 이후 특히 민간에서 중시되었던 경으로 평가하고 있다.⁶⁾ 이상의 4종 경전

6) 돈황본 『우란분경』은 총 8종의 자료가 있으며(『정도우란분경』 1종 포함), 이들 자료에

가운데 우란분재 설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경전은 물론 晉代(265—316) 法護에 의해 번역된 『우란분경』이다.⁷⁾

『우란분경』에서 설해진 내용들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대서사시이면서 『Rāmāyaṇa』와 더불어 인도 2대 서사시의 하나로 평가되는 『Mahābhārata』와의 연관성은 이미 이른 시기에 제시된 바 있으며,⁸⁾ 이외에도 『마누법전』과의 연관성이라든가 『Divyāvadāna』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 효라든가, 사후세계와 관계된 문제 등은 중국과 인도인 모두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란분경』이 독립된 경으로 모습을 갖추어가는데 있어서도 인도 전래의 사상이나 전통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⁹⁾

『우란분경』은 매우 짧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뚜렷한 구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경의 앞 부분은 「아귀지옥에 빠져 있는 목련의 어머니」와 관계된 이야기다. 대목건련이 여섯 가지 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젓먹여 길러준 은혜를(乳哺之恩) 갚고자 하였는데, 즉시에 도안으로 세간을 관찰하니, 그의 죽은 어머

대한 서지학적 검토는 金岡照光, 「敦煌本『孟蘭盆經』雜感—孟蘭盆會と目連變文に關して」(앞의 책)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7) 4종의 경전에 대해서는 松村 巧의 논문(「『孟蘭盆』と『中元』」, 앞의 책)을 참조하였음.

8) 池田澄達, 「孟蘭盆經に就いて」, 앞의 책, 60쪽

9) 『우란분경』이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경전의 성립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岩本 裕는 「目連傳説と孟蘭盆」(앞의 책, 172—174쪽)에서 목련이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라든가, 목련이 아귀를 구제하는 이야기의 전승 근거를 제시한 이후 이들 두 개의 전승을 합철하여 하나의 경전으로 만든 것이 『보은봉분경』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란분경』의 다양한 성립 배경에 대해서는 入澤 崇의 논문 「佛說孟蘭盆經成立考」(앞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니는 아귀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있었다. 목건련은 슬퍼하며 곧바로 발우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갖다 주었더니, 어머니는 발우와 밥을 보자 덩석 왼손으로 발우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어리로 변하여 먹지 못했다. 이걸 보고 목건련이 크게 소리쳐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여쭙었다고 한다.

『우란분경』의 중간 부분은 「자자일 공양과 목련 어머니의 구제」에 관계된 이야기다. 목건련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그의 어머니가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다”(當須十方衆僧威神之力 乃得解脫)고 하였다. 아울러 목건련에게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7월 15일,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自恣를 행할 때에 7세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가 액난에 있는 이를 위하여 밥과 백 가지 맛과 다섯 가지 과일과 물김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대덕 스님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날에는 모든 성중들이 산간에서 선정을 닦거나, 혹은 네 가지 도과를 얻었거나, 혹은 나무 밑에서 정행하거나. 혹은 육신통이 자재하여서 성문·연각을 교화하거나, 혹은 십지보살 대인이 방편으로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우와 밥을 받느니라. 청정한 계와 성중들의 도가 구족하니, 그 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누구라도 自恣를 하는 승려를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과거

칠세의 부모와 여섯 가지 친족이 삼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요, 衣食이 자연히 이르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가 현존한 이는 백년 동안 복락을 받을 것이요, 만일 이미 돌아가신 7세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되 자재하게 化生하여 天華光에 들어가 무량한 쾌락을 받으리라.¹⁰⁾

위의 경전 내용은 우란분제의 근본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중시되는 부분이다. 경전의 내용처럼 부처님은 목련에게 자자일 공양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설하였다. 그리고 자자일의 공양이 이루어지면 “청정한 계와 성중들의 도가 구족하니, 그 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누구라도 자자를 하는 승려를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과거 칠세의 부모와 여섯 가지 친족이 삼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요, 衣食이 자연히 이르리라.”고 하였다. 결국 목련의 어머니는 이 날로부터 一劫 동안 아귀의 고통을 벗어났다고 한다.

안거를 마친 聖衆은 청정한 계를 지니고 있으며 도를 구족하고 있다. 그러한 성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이상의 위신력은 없을 것이므로, 부처님은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므로써 현세의 부모와 7세의 부모가 모두 삼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하였다. 계속되는 경전 내용에서 부처님은 공양을 받는 승려들이 밥을 받기

10) 佛告目蓮 十方衆僧於七月十五日僧自恣時 當為七世父母 及現在父母厄難中者 具飯百味五果汲灌盆器 香油錠爇床敷臥具 盡世甘美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衆僧 當此之日 一切聖衆或在山間禪定或得四道果 或樹下經行 或六通自在教化聲聞緣覺 或十地菩薩大人權現比丘 在大眾中皆同一心受鉢和羅飯 具清淨戒聖眾之道其德汪洋 其有供養此等自恣僧者 現在父母七世父母六種親屬 得出三途之苦 應時解脫衣食自然 若復有人父母現在者福樂百年 若已亡七世父母生天 自在化生入天華光 (大正藏 16, 779b)

전에 먼저 施主家와 7세 부모를 위한 축원(呪願)부터 하라는 말씀을 하였다. 이로써 안거를 마친 수행 대중의 자자일에 공양을 올리고, 수행대중은 공양을 올린 시주가와 7세 부모를 위해 축원을 하는 우란분재 齋의 형태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곧 우란분재가 지니고 있는 핵심적 재의 형태이자 근본 정신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후대에 전승되고 있는 우란분재에서 이같은 내용은 상당 부분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우란분경』의 끝 부분은 「우란분재의 설행」과 관계된 이야기다. 목련은 어머니가 구제된 이후 부처님에게 미래 세상의 불제자들도 이와 같이 한다면 현재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구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쭙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孝行과 7월 15일 공양에 담겨 있는 뜻을 설한 이후, “이는 불제자로서 孝順을 닦는 이가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하되, 과거 7세의 부모까지 함이니라. 해마다 7월 15일은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써 낳으신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란분을 만들어 부처님과 스님에게 이바지하여 부모가 길러 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너희들 모든 불제자는 응당히 이 법을 받들어 지닐지니라.”¹¹⁾고 하였다. 우란분재의 설행을 정례화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우란분경』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우란분재가 처음 설행

된 시기는 梁 무제 대동 4년(538)으로 알려져 있다.¹²⁾ 물론 양 무제 이전에도 우란분재 형식의 의례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우란분경』이 처음 번역된 시기는 西晉시대이며, 5세기 후반인 남조 齊의 高帝(479—482) 때 “7월 15일에 널리 사찰에 盂를 보내어 3백 명의 승려에게 공양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7월 15일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승려들에게 盂를 보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란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란분재’라고 하는 재의 이름이 기록 속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538년의 일이므로, 학자들은 보통 이 해를 우란분재가 처음 설행된 시기로 보고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우란분재가 본격적으로 설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중국의 전통적 효 윤리와 불교의 효 윤리가 성공적으로 융합해간다는 측면에서도 중시되는 일이다. 이 시기 불교계는 중국의 전통 윤리와 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성공적인 결과가 수 당대의 불교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우란분재 설행을 통한 불교 효윤리의 전파는 중국 불교가 발전해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齊와 梁을 거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우란분재는 특히 중국 남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듯하다. 宗懷(498—561)이 편찬한 『荊楚歲時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7월 15일에는 僧尼 道俗이 모두 盂를 만들어 諸佛에게 공양한다. 『우란

11) 是佛弟子修孝順者 應念念中常憶父母供養乃至七世父母 年年七月十五日 常以孝順慈憶所生父母 乃至七世父母為作盂蘭盆施佛及僧 以報父母長養慈愛之恩 若一切佛弟子 應當奉持是法 (같은 책, 779c)

12) 四年 帝幸同泰寺設盂蘭盆齋(梵語盂蘭此云解倒懸 是目連尊者設此盆供 得脫母氏餓鬼之苦) 『佛祖統紀』 권 37, 法運通塞志 제17-4, 梁(建康) 武帝(蕭衍)

분경』에 “칠엽 공덕을 배풀 때에는 모두 깃발과 채색 꽃으로 꾸미고,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과일과 음식을 갖추어 전송한다.”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인 듯하다. 목련은 죽은 어머니가 아귀 지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바리때에 밥을 가득 담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드렸으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모두 변해서 火炭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다. (中略) 그 후 후세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인하여 널리 우란분을 화려하게 꾸미고, 심지어는 나무에 새기거나 대나무를 자르고, 밀랍을 녹이거나 채색 비단을 오려 꽃잎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솜씨가 지극히 아름답고 묘하였다.¹³⁾

『형초세시기』의 정확한 편찬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宗懷의 생몰연도를 감안할 때 위의 자료는 6세기 중엽 무렵의 荊楚(지금의 호북성, 호남성 일대)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는 杜公瞻이 주석을 가한 현행본 『형초세시기』의 간행 시기(大業年間, 605—617)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이 시기 승려와 재가신자는 7월 15일, 盂을 만들어 諸佛에게 공양하고 있었다. 宗懷은 이러한 의례가 『우란분경』에서 유래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용 자료에서 보이듯이 당시 불교인들은 공양을 올리

기 위해 盂을 화려하게 꾸몄을 뿐 아니라 나무, 대나무, 밀랍, 비단 등을 이용하여 갖가지 盂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란분제가 이미 중국인들 속에서 중요한 불교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중국의 우란분제는 도교의 中元節과 함께 융합되면서 점차 중국인 전체가 참여하고 즐기는 민속의 형태로 변화되어갔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교에서는 三元節을 중시하는데, 삼원은 上元(정월 15일), 中元(7월 15일), 下元(10월 15일)을 의미한다. 삼원절은 天·地·水 三官이 사람들의 功過를 校算하는 날이며, 신도들은 이 날 자기가 행한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齋戒와 참회를 한다.¹⁴⁾ 이러한 도교의 중원절과 불교의 우란분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습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당나라의 고승 玄嶷은 『甄正論』을 통해 삼원절과 관련된 도교의 여러 내용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檢尋老莊之文 本無此事).¹⁵⁾ 물론 이와 상반된 견해, 즉 도교의 삼원사상이 불교에 영향을 미쳐 우란분회가 생겨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란분제일이 부처님 재세 당시의 自恣日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선후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란분제와 중원절의 습합은 불교와 도교의 습합·

13) 七月十五日 僧尼道俗 悉營盆供諸佛 按孟蘭盆經云 有七葉功德 並幡花歌鼓 果食送之 蓋由此也 目蓮見其亡母生 餓鬼中 卽以鉢盛飯 往餉其母 食未入口 化成火炭 遂不得食……故後人因此廣爲華飾 乃至刻木割竹 餉蠟剪綵 摸花 葉之形 極工妙之巧 『형초세시기』는 6세기 경 종림이 저술한 『荊楚記』에 杜公瞻이 7세기 초 증보 가주한 것이다.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형초세시기』 『초학기』 『동경몽화록』 『세화기려보』 등의 자료를 한데 모아 『중국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3, 2006)을 간행하였으며, 『형초세시기』에 대해서는 尙基淑의 논문, 「『형초세시기』 연구」, 『민속연구』 5(안동: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5)이 참고된다.

14) 松村 巧, 「『孟蘭盆』と『中元』」, 앞의 책, 233—235쪽 참조.
서석재, 「당대 우란분회의 전개와 불교의 유·도·二教 수용」, 『중국고중세사연구』 12(서울:중국고중세사학회, 2004)
15) (大正藏 52, 567b). 松村 巧는 이 자료를 소개하면서 “물론 이것은 唐代 道佛 양교의 논쟁 가운데, 불교측으로부터 도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만 玄嶷가 삼원절이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장은 논박자의 눈에 반영된 삼원절의 의의를 명쾌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孟蘭盆』と『中元』」, 같은 책, 235쪽). 실제 이 자료는 삼원절의 시원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측면에서 중시되기도 한다.

변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중국 민속을 창출해냈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시될 필요가 있다.

III. 고려시대의 우란분재

중국에서 시작된 우란분재 행사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도 전해졌다. 일본은 606년, 657년, 659년의 『일본서기』 기록에 의해 우란분재 실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특히 657년의 기록에서는 ‘設盂蘭盆會’라는 표현이 직접 명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우리나라 우란분재 실행 기록은 다음의 『고려사』 기록이 가장 앞선다.

(가을 7월) 계묘일에 長齡殿에서 우란분재를 올려 숙종의 명복을 빌었다. 갑진일에 또 명망 있는 승려를 불러 『목련경』을 강의하도록 하였다.¹⁷⁾

한국 고대사와 관련한 자료가 워낙 부족한 현실이라든가, 유자들이 편찬한 『고려사』에서 불교 관련 기사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睿宗 원년(1106) 7월 계묘일, 궁궐 내 장령전에서 우란분재

16) 自是年初 每寺 四月八日 七月十五日 設齋(『일본서기』 推古天皇 14년(606년))
辛丑 作須彌山像於飛鳥寺西 且設盂蘭盆會(같은 책, 齋明天皇 3년(657년))
庚寅 超群臣 於京內諸寺 勸請盂蘭盆經 使報七世父母(같은 책, 齋明天皇 5년(659년))
17) 癸卯 設盂蘭盆齋于長齡殿 以薦肅宗冥祐福 甲辰 又召名僧 講目連經
『고려사』 12권, 세가 12, 예종 1

를 실행하였다는 위의 『고려사』 기록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우란분재 실행 사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우란분재가 이미 7세기 경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역사에서도 매우 이른 시기부터 우란분재가 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6-7세기 경의 백제는 중국 남조와 빈번하게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 직접 불교를 전해주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의 우란분재 역시 삼국시대부터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각국사문집』에 실려 있는 다음 자료를 통해 1106년 이전 고려 사회에서 행해졌던 우란분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란분재일에 팔에 불을 태워 발원하는 疏」

삼가 생각하건대, 『범망경』에 법을 중히 여기는 규범을 드리워 팔을 태우는 것을 먼저 가르치셨고, 『능엄경』에 빛을 갠 모범을 말씀하시어 몸을 태우는 것을 간곡히 보이셨으니, 하물며 부모의 노고에 어찌 정성으로 간절한 슬픔을 다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무개는 다행히 천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 법을 만났고, 또한 일승의 업을 오로지 하였으며, 오묘한 도가 사람에게 있다 하여 비록 마음에 새긴 지 오래이나 그윽한 진리의 말은 조짐이 끊기었으니, 어찌 얼굴을 담에 대고 도를 알지 못한 채 오래도록 지내겠습니까? 여러 번 송나라에 유학하여 도를 구하고자 했지만 매번 장애가 있어 죄업의 허물이 깊이 얽혀 있음을 깊이 탄식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함을 슬퍼할 따름이었습니다. 만일 불보살의 돌보심과 가호가 아니면 어찌 법을 구해 오

려는 저의 평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으며 공덕을 본받는 일을 안으로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지극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석가세존을 비롯한 여러 성스런 대중들께서는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가련한 마음으로 한 줄기 향을 팔에 태우는(燒臂) 작은 정성을 거두어 주소서. 오늘의 좋은 인연을 의지해서 몸소 일백 城을 두루 돌며 다른 날 스승을 기이하게 만났던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본받게 하소서. 바람이 그치면 다시 부채질을 하듯, 법 비(法雨)가 그쳤지만 다시 비를 내려 圓宗을 길이 퍼지게 하시고 이로써 마침내 온전한 효도를 이루게 하소서.¹⁸⁾

대각국사 의천이 남긴 위의 疏文은 그동안 우란분재를 다루었던 연구자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이다. 「蘭盆日燒臂發願疏」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의천은 우란분재일에 연비를 하면서 부처님께 발원을 하였다. 의천은 宋으로의 유학을 간절히 원했지만, 당시 국제상황 등을 고려한 왕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1085년 4월 왕실에 서신만 남겨놓고 商船에 의탁하여 몰래 유학길에 나섰으며, 그로부터 14개월 후인 1086년 6월 경 귀국하였다. 본문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이 글은 의천의 入宋 유학이 성

18) 右伏以 梵網垂重法之規 先教燒臂 楞嚴談酬債之範 曲示熱身 矧惟父母之劬勞 盍罄精神之哀懇 某運逢千載 業檀一乘 妙道在人 雖剗心而斯久 玄言絕朕 奈墻面以居多 屢欲遊奈 每看障礙 嘆罪愆之深結 悲教法之下衰 若匪冥加 豈諧素願 敢効功於內施 竊扣應於克誠 伏乞本師世尊爲首多諸聖衆等 不捨慈悲 哀憐納受 願使臂燒一炷 賴今日之良因 躬歷百城 遂他年之奇遇 眞風息而復扇 法雨收而更霽 永播圓宗 終成全孝 某歸命激切之至(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한국불교전서 편찬자가 판독한 내용이다) 의천, 「蘭盆日燒臂發願疏」, 『大覺國師文集』 권15(『한불전』 4, 553b)

사되었던 1085년 4월 이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의천은 우란분재일에 발원을 하면서 “송나라에 유학하여 도를 구하고자 했지만 만일 불보살의 들보심과 가호가 아니면 어찌 법을 구해 오려는 저의 평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으며 공덕을 본받는 일을 안으로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또한 “오늘의 좋은 인연을 의지해서 몸소 일백 성을 두루 돌며 다른 날 스승을 기이하게 만났던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본받게 하소서. 바람이 그치면 다시 부채질을 하듯, 법 비가 그쳤지만 다시 비를 내려 圓宗을 길이 퍼지게 하시고 이로써 마침내 온전한 효도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의천은 입송 유학에 대한 의지와 함께 圓宗, 즉 화엄종의 흥포와 孝의 성취를 간절하게 발원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⁹⁾ 이 자료는 의천의 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려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우란분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의천은 우란분재 또는 『우란분경』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19) 의천의 입송 유학 목적과 천태종 개창 의지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학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의천이 천태종 창종을 언제부터 발원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가 천태종을 개창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의천이 해인사로 퇴거한 1094년 무렵부터 천태종 개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김상영,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논문집』 8, 중앙승가대학교, 1999 : 『의천-한국의 사상이 10인』, 예문서원, 2002 재수록),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김상현, 「의천의 천태종 개창 과정과 그 배경」, 『천태학연구』 2,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0 : 『의천-한국의 사상이 10인』, 같은 책, 재수록). 본문에서 소개한 「蘭盆日燒臂發願疏」의 내용을 통해서도 의천의 입송 유학 목적과 천태종 개창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원종(화엄종)의 흥포를 발원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있었던 듯하다. 그의 문집에는 『우란분경』을 강설하면서 남긴 「講蘭盆經發辭」라는 또 다른 글이 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우란분경』에 대한 의천의 經典觀을 살필 수 있다. 의천은 글의 앞 부분에서 먼저 효의 성격과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큰 자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고 큰 효도는 친애하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큰 자비가 아니며, 현재의 부모만 친애하고 옛날에 친애했던 부모를 친애하지 않으면 큰 효도가 아니다.”고 하였다. 大慈와 大孝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효는 과거세의 부모까지 친애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의천의 이러한 설명은 물론 『우란분경』에 실려 있는 내용을 부연한 것이다. 의천은 계속해서 불교와 유교의 효 이야기를 한 이후 “비록 가르침을 베푸는 형식에는 다름이 있으나 효도를 숭상하는 데에는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유교 못지않게 불교에서도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의천은 『우란분경』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는데, 그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사이신 대각 세존께서는 처음 정각을 이루었을 적에 宿世에 근기가 성숙한 큰 보살들을 위하여 처음 14일 동안 화엄대교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하시고 바로 범망보살대계를 설하시며 이르시기를,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孝順하고 지극한 법에 효순해야 하는 효를 곧 戒라 한다”하시고 열 가지 무거운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를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품의 큰 계(性戒)이며 효의 극진함이다. 만일 중생의 소질과 근기의 마땅함에 따라 순응하고 말세에 빛을 띠려면 이 『우란분

경』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다. 목련존자로 인하여 이 경을 설하는 인연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선양하셨으니, 自恣하는 승려들을 청해 수고한 은혜를 갚고자 많은 음식을 공양함에 십지보살이 이에 응하였으니 그 덕이 크고 넓어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 두 가지 장애를 없앤 이익이 넓고 큰지라, 가히 미혹을 깨뜨리는 앞의 陣營이요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관문이라 할 것이다.²⁰⁾

의천은 『우란분경』의 중요성에 대해 “만일 중생의 소질과 근기의 마땅함에 따라 순응하고 말세에 빛을 띠려면, 이 『우란분경』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우란분경』을 “미혹을 깨뜨리는 앞의 陣營이요,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관문이다”(破迷前陣 入道要門)고도 하였다. 의천이 이처럼 『우란분경』을 중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²¹⁾ 특히 그가 지니고 있었던 비중을 감안할 때, 『우란분경』을 중시했던 의천의 이러한 태도

20) 「講蘭盆經發辭」의 전체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大慈無不愛 大孝無不親 愛我之愛不愛彼之所愛 非大慈也 親今之親 不親昔之所親 非大孝也 然以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六度之歸八萬 而福莫大於行孝 故得釋門通於五時 儒典通乎六籍 包羅大小 統貫尊卑 雖設教有殊 而崇孝無別 故我本師大覺世尊 初成正覺 爲宿世根熟 大菩薩衆 於第二七日 轉花嚴大教根法輪 便說梵網 菩薩大戒云 孝順父母 師僧三寶 孝順至道之法 孝名爲戒 乃至廣說 十重四十八輕者 此是稱性大戒 孝之極也 若乃曲順機宜 流光末業者 今此蘭盆 實爲其要 因日連而起發故 大覺以宣揚 請自恣僧報効勞德 供饌具而十地應 其德汪洋 定慧修而二障除 其利浩博 可謂 破迷前陣 入道要門 所言佛說孟蘭盆經者 三覺圓滿 稱之爲佛 一音演鳴名之爲說 孟蘭是西域之語 此云倒懸 盆乃東夏之音 仍爲救器 經則爲常爲法 是貫是攝 常則道軌百王 法乃德 模千業 貫則集斯妙理 攝又御彼庸生 故言佛說孟蘭盆經也 其他隨文發義 次下當知 의천, 「講蘭盆經發辭」, 『大覺國師文集』 권3(『한불전』 4, 530c-531a)

21) 의천은 淨源이 지은 「孟蘭盆禮贊文」을 직접 전해 받은 적도 있다(의 천, 「上淨源法師書四首」, 『大覺國師文集』 권10, 『한불전』 4, 543b-544b). 『우란분경』을 중시했던 의천의 태도가 淨源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를 느낀다.

는 고려중기 불교계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들었던 1106년의 우란분재 설행 기사를 포함하여 『고려사』에는 총 7건의 우란분재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글의 전개를 위해 우선 기사 내용 전체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①癸卯 設盂蘭盆齋于長齡殿 以薦肅宗冥祐福 甲辰 又召名僧 講目連經(1106년)²²⁾

②戊午 設盂蘭盆道場於長齡殿(1109년)²³⁾

③秋七月 丙申 還新闕 壬寅 設盂蘭盆齋于奉元殿(1153년)²⁴⁾

④癸未 幸神孝寺 設盂蘭齋(1285년)²⁵⁾

⑤秋七月 辛巳 王與公主 幸廣明寺 設盂蘭盆齋(1296년)²⁶⁾

⑥秋七月 己亥 王與公主 幸神孝寺 設盂蘭盆齋(1308년)²⁷⁾

⑦秋七月 癸巳 設盂蘭盆齋于內殿(1356년)²⁸⁾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고려 왕실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였다. 이들 행사는 건국 초부터 고려 말까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설행 사례를 보인다. 이에 비해 우란분재는 다

소 비중이 떨어지는 행사였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위에서 열거한 우란분재 설행 기사는 물론 왕실이 직접 주관하였던 성격의 행사이다. 7건의 기사 모두 우란분재가 행해졌던 시기와 장소 정도의 정보만을 담고 있지만, 그나마 ①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정도의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106년에 행해졌던 우란분재는肅宗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숙종에 이어 즉위한 예종은 그 해 우란분재일을 부왕 숙종의 명복을 기원하는 법회로 개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란분재가 지니고 있는 재의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우란분재를 봉행한 다음 날 名僧을 초청하여 『목련경』을 강설하게 하였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의천이 『우란분경』을 중시했음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기사는 고려 사회에서 『목련경』이 설행된 유일한 사례로 주목된다. 단편적인 기사 내용으로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를 통해 고려사회에서 『우란분경』과 『목련경』이 함께 중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7건의 기사를 통해 우란분재가 행해졌던 장소에 대한 내용도 살필 수 있다. 즉 7건 가운데 4건은 왕실 내에서 우란분재가 행해졌으며(장령전 봉원전 내전), 3건은 사찰에서 재가 이루어졌다.²⁹⁾

『고려사』 등의 사서 이외 자료에서 우란분재와 관련한 내용은 잘

22) 『고려사』 12권, 세가 12, 예종 1
23) 『고려사』 13권, 세가 13, 예종 2
24) 『고려사』 18권, 세가 18, 의종 2
25) 『고려사』 30권, 세가 30, 충렬왕 3
26) 『고려사』 31권, 세가 31, 충렬왕 4
27) 『고려사』 33권, 세가 33, 충선왕 1
28) 『고려사』 39권, 세가 39, 공민왕 2

29) 한편 '蘭盆'이라고 하는 용어가 승려를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고려 문종 때 승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려사』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穢臭蘭盆', 즉 '난분에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의 난분은 발우로 상징되는 승려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려사』 7권, 세가 7, 문종 1 丙申 10년 9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고려 말 문인 稼亭 李穀(1298—1351)³⁰⁾과 그의 아들 牧隱 李穡(1328—1396)이 남긴 글을 통해 고려 후기 우란분제의 실행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이색이 남긴 시문이다.

「아침에 비가 오다(朝雨)」³¹⁾

절집마다 모두 우란분회를 베푸니 孟蘭盆會遍僧家
 신도들은 떼지어 왁자지껄 담소하는데 檀越成群笑語譁
 난 홀로 연잎 밝은 원통을 마주하다 獨對圓通躡蓮葉
 문득 광제사로부터 법화를 빌려왔네 却從廣濟借荷花
 뜬구름은 바람 따라 광대히 움직이고 浮雲浩浩隨風轉
 가랑비는 햇살을 띠고 실실 내리누나 小雨絲絲帶日斜
 지난 허물 깨끗이 씻어 매우 청정하거니 滌盡往愆清淨甚
 어찌 고통 참고 산수와 짝할 것 있으랴 何須忍苦伴煙霞

30) 이 곡은 승려 智見의 청으로 「金剛山普賢菴法會記」(『稼亭先生文集』, 卷2 記)를 지어 주었다. 智見은 금강산 보현암에 주석할 때 이곳을 들렀던 원나라 奎章公의 도움을 받아 보현암 중수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내용의 기문을 이곡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기문에 ‘又以今年(1338년) 益延繙流三百餘指施衣鉢 作大佛事 始于四月初八 終于七月十五’라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智見이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의미로 승려 300명을 모아 그들에게 가사와 발우를 주는 큰 불사를 행했으며, 그 불사가 4월 초파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7월 15일은 물론 우란분제일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고려 후기 불교계에서 우란분제의 의미, 즉 출가 승려에게 공양을 올리는 전통은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이색, 「朝雨」, 『牧隱詩藁』 卷24 詩

「7월 보름의 일을 기록하며 감회에 젖다(孟秋望日記事有感)」³²⁾

우란분의 법회는 서역에서 나왔나니 孟蘭盆法出西天
 진단의 번역은 도현이라 하나니라 震旦翻爲解倒懸
 온 나라가 뒤질세라 분주히 치달리는 때에 舉國奔馳唯恐後
 아직도 이 몸은 여전히 떠돌이라 부끄럽네 愧吾流落尙如前
 두 병에 꽃힌 꽃은 참으로 불품없다마는 兩瓶花蕊眞無幾
 한 가닥 향 연기는 대천 세계에 퍼지리라 一稷香烟徧大千
 다행히 조사당에 천신할 맵쌀을 얻어 와서 幸得祖堂新粳米
 나도 한낮에 백의선에게 절하고 올렸노라 日中拜獻白衣仙

이색의 문집 속에는 우란분제와 관련한 총 3편의 시가 실려 있으며, 이 가운데 2편의 시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시 「朝雨」에서는 고려 후기 우란분회를 행하는 사찰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색은 당시 대부분의 사찰에서 우란분회가 행해지고 있다고(遍僧家) 하였다. 그리고 그 우란분회에 참석한 신도들은 무리를 이루어 서로 웃으며 왁자지껄 담소를 나누고 있다고(笑語譁) 하였다. 이 시기 불교계 우란분제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구이다. 그는 또한 제 7句에서 “지난 허물 깨끗이 씻어 매우 청정하거니(滌盡往愆清淨甚)”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란분제의 기원에 해당하는 自恣日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색의 시구를 통해 이 시기 재가불자들은 우란분제일에 모여

32) 이색, 「孟秋望日記事有感」, 『牧隱詩藁』 卷35 驪興吟

自恣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색은 두 번째 시 「孟秋望日記事有感」에서 우란분재의 유래와 의미를 간략히 소개한 후, “은 나라가 뒤질세라 분주히 치달리는 때에(擧國奔馳唯恐後)”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제 3句의 이 내용은 물론 우란분재를 행하느라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 시의 내용과 함께 이 시기 우란분재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구이다. 또한 제 7句는 다행스럽게 멍쌀을 구해 와서 조사당에 공양을 하였다는 표현으로, 이것 역시 우란분재의 근본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타 佛殿이 아닌 조사당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자자일을 맞이한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³³⁾

이상에서 고려시대 우란분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고려사』 『대각국사문집』 『목은시고』 등에 전하는 내용을 통해 고려시대 우란분재는 왕실과 사찰 등에서 꾸준히 실행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고려의 우란분재는孝의 선양이라든가 自恣, 수행 승려들에 대한 공양 등의 우란분재와 관련한 기본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의 우란분재는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국가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고려불교의 특성과 관련하여 우란분재의 실행과 관련한 연

33) 이색은 「七月十五日」(『牧隱詩藁』 卷24 詩)이라는 제목의 시도 남겼다. 이 시는 절에서 우란분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자신의 심경을 읊은 것으로, 우란분재와 관련한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았다.

구는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³⁴⁾

IV. 조선시대의 우란분재와 백중

1. 우란분재와 백중

조선시대 이후 우란분재는 백중과 함께 실행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백중은 중국, 일본 등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한국 고유의 민속행사에 속한다. 우리 민속사에서 백중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백중에 대한 민속학자들의 연구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중이라는 용어의 발생 배경이라든가, 우란분재와 백중이 언제부터 융합된 형태로 시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백중의 기원 문제를 주목하면서 백중은 우리 민족의 고대 농경세시 원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남선의 글을 바탕으로 하여³⁵⁾ 몇 가지 논지를 전개시

34) 한편 1347—8년간에 편찬된 『朴通事諺解』(景印老·朴諺解合刊本, 聯經出版事業公司, 1978)라는 자료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시기 고려 승려가 元에 초청되어 慶壽寺에서 행해진 우란분재의 壇主가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唱念을 하고 『目連尊者救母經』을 설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목련경』의 유통사라든가 목련경 설행의 연회적 측면을 전하는 내용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오현화, 「불교축제로서의 우란분재」, 앞의 책, 224—225쪽). 또한 원나라에서 고려 승려를 초청할만큼 14세기 우란분재가 국제적 불교제로 성행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35) 최남선은 백중에 대하여 “농사진행상의 어느 계단에 있는 일 행사와 불교 도교의 요소 등이 雜有하여 특수한 일 형태를 구성한 節日로 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켜가고 있는데, 李秀子は 제주도의 「세경본풀이」라는 제주도 무속 신화를 근거로 하여 백중의 형성 시기가 제의시대 또는 신화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³⁶⁾ 구미래 역시 이수자가 근거로 삼은 「세경본풀이」의 자료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처럼 7월 보름이라는 세시기를 고려할 때, 굳이 우란분재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에 합당한 세시습속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7월 15일을 맞이하여 조상신에게 제를 올린 것 역시 우란분재의 천도의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한기와 햇작물이 풍성한 시기를 맞이하여 조상에게 올리는 독자적인 천신의례로 여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³⁷⁾ 이들의 견해는 결국 백중은 우란분재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농경 세시 속에서 발생한 농경의례이면서 농경문화였다는 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백중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백중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배경과 그 과정을 주목해 보는 것이 순리이다. 설사 음력 7월 15일을 기념하는 세시풍속이 신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다음 내용을 참조해보도록 하자.

(「조선상식」 세시편 ‘백중’, 『육당최남선전집』 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서울: 현암사, 1973)
 36)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앞의 책)
 37) 구 미래, 「백중과 우란분재의 발생기원에 관한 연구」(앞의 책, 510—511쪽)

나라의 풍속이 7월 15일은 절에 가서 혼을 불러 제사하였는데, 이날 무려한 승도들이 도성에 들어와 거리 골목에서 기를 세우고 鎗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하여 饌具를 늘어 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百種 · 施食이라고 이름하였다. 士女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곡식과 배를 施捨하되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고, 卿士의 집에서도 하는 자가 있었다.³⁸⁾

우란분재일인 음력 7월 15일을 백중으로 칭하게 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시기상 가장 앞서서 자료는 『태종실록』인데, 『태종실록』의 두 곳에 百種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³⁹⁾ 이로 인해 백중은 처음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백중, 즉 백중의 선행 모습은 위에서 인용한 자료 『세종실록』에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먼저 우란분재를 ‘혼을 불러 제사하는(招魂以祠)’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언제부터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란분재를 상징하는 개념이 招魂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당시 우란분재를 행하는 승려들이 도성에 들어와 “거리 골목에서 기를 세우고 鎗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하여 饌具를 늘어 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百種 · 施食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앞선 고려시대의 관련 자료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우란분재가 언제부터 있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의 불교탄압책이 태종—세종 연간을 거치면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38)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4일 병술
 39) 初 陝州 夢溪 寺 僧 設 百種 法 席 極 備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2월 11일 을축)
 予聞中國七月禁行船且諺有之曰百種有大風(『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17일 경자)

고려한다면 이것은 이미 불교탄압책이 극심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던 무렵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불교가 일반 민중 속으로 융합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란분제와 같은 제의 역시 민중 중심의 형태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의해 조선초기의 우란분제는 백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百種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유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우란분경』의 경구, 즉 ‘具飯百味五果汲灌盆器’ ‘以百味飲食安盂蘭盆中’이라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자들은 厄難에 처해 있는 현세의 부모와 7세 부모를 구제하기 위해 안거를 마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우란분경』에는 이 공양물의 내용에 대해 具飯百味五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 그대로 우란분제는 불자들이 승려들에게 밥과 백 가지 맛을 가진 음식, 다섯가지 과일을 담은 그릇을 올리는 날이다. 백종이라는 이름은 『우란분경』의 이 내용, 즉 百味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시대 관련 문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金邁淳(1776—1840)의 『洌陽歲時記』에 실려 있는 다음 내용을 참조해보도록 하자.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의 옛 풍속에 왕녀가 六部の 여자들을 데리고 7월 16일부터 큰 부의 딸에 모여 배를 짜기 시작하여 8월 보름날에 그 많고 적음을 비교해서 진 사람은 술과 음식을 갖추어 이긴 사람에게 사례한다. 그때 서로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놀이를 다하다가 꾀하였으므로

7월 보름날은 百種節이라 하고, 8월 보름은 嘉排日이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했으므로 우란분의 공양을 모방하는 유속을 따라 中元日에는 백 가지의 꽃과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복을 빌었으므로 여기에서부터 곧 百種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이 두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금은 다만 그 이름만 남았을 뿐 그 행사는 없어졌다. 그러나 僧家에서는 이날 제를 올려서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시정의 백성들은 서로 모여 흥겹게 논다. 이것은 대체로 옛날의 풍습에 따른 것이다.⁴⁰⁾

『열양세시기』는 열양, 즉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김매순이 1819년에 완성하였다. 김매순은 이 책에서 백종의 어원에 대한 두 가지 설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백종의 어원과 관련하여 19세기 초반까지 전해지던 대표적 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소개한 첫 번째 설은 신라 嘉排日과의 연계설이다.⁴¹⁾ 즉 신라는 7월 16일

40) 世傳 新羅故俗 王女率六部女子 自七月既望 早集大部庭 續麻至八月十五日 考功多少 負者 置酒食 以謝勝者 相與歌舞 作百戲而罷 故 以七月望日爲百種節 八月望日爲嘉排日 或曰 羅麗崇佛 倣盂蘭盆供遺俗 以中元日 具百種花果 供養祈福 故以其名日 二說未詳 孰是 金則惟存其名 而並無其事 然僧家以是日設齋 薦先魂 市井小民相聚譙飲 以爲樂 蓋略沿舊習也

金邁淳, 「中元」, 『열양세시기』 7월

41) 가배일의 유래에 대한 내용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삼국사기』 권 제1, 신라본기 제1, 유리 이사금 9년). 즉 “왕이 6부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部 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서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大部의 딸에 모여서 길쌈을 하도록 하여 밤 10시경에 그치는 데,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적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사례하였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모두 행하는데 그것을 嘉排라 하였다(王既定六部 中分爲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大部之庭續麻 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歌舞百皆作 謂之嘉排)”는 내용인데, 8월 15일에 행해졌다고 하는 ‘노래와 춤과 온갖

부터 큰 부의 딸에 모여 배를 짜기 시작하여 8월 보름날에 그 많고 적음을 비교해서 진 사람은 술과 음식을 갖추어 이긴 사람에게 사례하는 습속이 있었으며, 그때 서로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놀이를 다 하다가 꺾하였으므로 7월 보름날은 百種節이라 하고, 8월 보름은 嘉排日이라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백종은 ‘온갖 놀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설은 우란분제와 관계된 것으로, 중원일에는 백 가지의 꽃과 과일을 부치님께 공양하며 복을 빌었으므로 여기에서부터 백종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백종은 ‘백 가지의 꽃과 과일’, 즉 공양물의 의미이다. 김매순은 두 가지 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嘉排日은 7월 16일부터 시작된 놀이이므로 이것을 백종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느낌이 든다.

『열양세시기』 이외의 자료에서도 백종의 語義와 관련한 내용은 더 찾아지는데, 그 대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金守溫(1410—1481), 「見性菴靈應記」, 『拭疣集』 제2권
7월 15일은 세속에서 百終으로 부른다.(至七月十五日 俗號百終)

②成倪(1439—1504), 『용재총화』 제2권
7월 15일은 속칭 百種이라 하여 僧家에서 1백 가지 꽃과 과일을 모아 우란분을 배풀었다.(七月十五日俗呼爲百種 僧家聚百種花果 設盂蘭盆)

놀이(歌舞百皆作)를 백종의 기원으로 이해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③李植(1610 별시문과 급제), 「國書」, 『澤堂先生別集』 제1권
또 신라의 옛 풍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그리고는 서로들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면서 갖가지 연희(百戲)를 배풀고 자리를 꺾었다. 그래서 7월 15일을 백종절이라 하고 8월 15일을 가배절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는다.(又新羅故俗……相與歌舞 作百戲而罷 故以七月望日 謂之百種節 八月望日 謂之嘉排節 我國則雖有其名 而無其事)

④柳得恭(1749—?), 「中元」, 『경도잡지』
『우란분경』에 의하면, 목련비구가 7월 15일날 백 가지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을 분에 담아서 十方大德을 공양했다고 했다. 지금 말하는 百種이란 백가지 음식을 말하는 것이다.(按孟蘭盆經 目蓮比丘 七月十五日 具百味五果 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 今所云 百種 卽百味之謂也)

⑤洪錫謨(1781—1850), 「中元」, 『동국세시기』 7월
또 『우란분경』에 의하면 목련비구가五味를 가진 음식과 백 가지 과일을 갖추어 분에 담아서 시방대덕을 공양했다고 했다. 지금 말하는 百種日 百果를 말하는 것 같다.(又按孟蘭盆經 目蓮比丘 具五味百果 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 今所云 百種日 似指百果也)

⑥錦溟 寶鼎(1861—1930), 「咏養蜂子」, 『茶松詩稿』 제3권
백종일날 읊었다. 일반에서는 白躡이라 하고 혹은 百種이라 하며 선가에서는 魄縱이라고 한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까닭에 그 옳고 그름은 알지 못하겠다. 白躡과 魄縱이라는 말이 위주가 되어야 하므로 올바르

게 바로잡아야 한다.(白踵日吟 田家云白踵 或云百種 禪家云魄縱云 未知是非而既以習慣故 白踵魄縱之言 爲主也 當校可也)

조선시대 각종 자료 가운데 총 6건의 관련 내용을 시대순으로 열거해 보았다. 이들을 통해 백중에 대한 명칭이 무척 다양하고 그 의미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의 百終은 3개월의 안거 기간을 100일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100일간의 하안거가 끝나는 날’이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⁴²⁾ 백중행사가 충청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백제가 망한 날(終)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⁴³⁾ 또한 ⑥의 자료는 조선 후기의 학승 錦溟 寶鼎이 「咏養蜂子」라는 시에 덧붙인 주석의 내용인데, 보정은 白踵과 魄縱이라는 표현이 옳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白踵은 ‘농부들이 농사를 마무리짓고 발뒤꿈치(踵)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魄縱은 글자 그대로 혼백을 쫓는 우란분재의 의미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보정은 당시 불교계에서 魄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실제 이렇게 표현된 예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⁴⁴⁾

42) 「백중에 대한 諸說」, 『불교』 제2호(경성:불교사, 1924. 8), 50쪽

43) 박계홍, 『증보한국민속학개론』(서울:형설, 1987), 396쪽. 한편 구미래는 百終의 용어를 근래에 생성된 것으로 보았으나(구미래, 앞의 논문, 500쪽), 이미 김수온에 의해 이러한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 흥미롭다.

44) 최남선은 “이 날을 백중이라 쓰고 한문으로 百種 魄縱 白踵 白衆 등의 字를 쓰나 그 어의는 다 未詳하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白衆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남김 없이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구미래, 앞의 논문, 500쪽). 우란부제가 하안거를 마치는 자자일에 거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白衆으로 표현된 실제 자료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인용하였던 『조선왕조실록』 『열양세시기』를 포함하여 위에서 열거한 ②, ④, ⑤의 자료는 모두 百種으로 표현되어 있다. 결국 우란분재는 조선 초기부터 百種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우란분경』의 百味, 즉 음식이나 과일의 개념으로 파악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백중이라는 용어는 불교와는 무관하게 민간습속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⁴⁵⁾는 견해는 시정될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한다. 한편, 百種이 오늘날과 같은 百中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2. 조선시대 우란분재의 특성

조선시대 불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반된 개념의 史觀이 현존한다. 우선 조선시대 불교의 표면에 나타난 현상, 또는 그 결과론적인 현상에 치중하여 조선시대 불교를 평가하는 사관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학계에서 통용되어 오고 있는 ‘송유억불기’ ‘불교탄압기’ ‘불교쇠퇴기’ ‘산중불교시대’ 등의 시대구분 용어와 그에 입각한 사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불교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자 하는 사관이 있다. 조선시대 불교가 지배권력으로부터 극렬한 탄압을 받았으며, 이전 시대에 비해 교학 수준이나 문화예술 전반의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

45) 구미래, 앞의 논문, 498쪽

한 사실이다. 하지만 가혹할 정도의 불교탄압 속에서도 法燈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교는 피지배계층으로 더욱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조선시대 불교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란분제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교와 민중은 피지배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은 우란분제와 백중을 통해 서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까지의 불교를 귀족불교라고 한다면, 조선시대는 ‘대중불교’ ‘서민불교’ ‘민중불교’라는 이름이 적합한 시기였다. 조선시대의 우란분제 역시 이전의 왕실, 귀족 중심의 제의에서 민중 중심의 제의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우란분제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僧徒가 招魂한다고 핑계하고 都城人 婦女를 길거리에서 모으니, 저들이 薦亡하기 위하여 재를 베푼다면 마땅히 깨끗한 집으로 갈 것이지, 어찌 반드시 길거리에서 하겠습니까? 청컨대 禁斷을 加하여 뒤의 폐단을 막으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막아 금지하는 일은 승정원에서 兩宗의 승려들을 불러서 말하도록 하고, 뒤에도 이와 같이 하는 자가 있거든 憲府에서 마땅히 그 가장을 중한 죄로 논하도록 하라. 그 막아 금지하는 事目은 다시 稟命하여 세우도록 하라.”하였다.⁴⁶⁾

46)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1458) 7월 16일(신축)

② 7월 15일은 속칭 백중이라 하여 승가에서 1백 가지 꽃 열매를 모아 우란분을 베풀었는데, 서울에 있는 여승의 암자에서 더욱 심하였으므로 부녀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곡식을 바치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 제사지냈다. 왕왕 승려들이 탁자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엄금하여 그 풍속이 없어지게 되었다. 중추의 달구경, 중앙절의 높은 데 오르기, 동지의 팔죽, 庚申日의 밤새우기 등 모두가 옛날의 유속이다.⁴⁷⁾

③ 7월 15일을 중원이라 한다. 이 설이 본래 도교와 불교의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승니와 道俗이 모두 이를 중시하여, 우란분제와 醮祭와 誦經을 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승가에서 모두 이날에 재를 올려 선조의 혼백을 위로하는데 민간 백성들은 이를 많이 본받고 있으나,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단지 보름날이기 때문에 예법에 따라 선조의 사당에 糞을 올릴 뿐이다.⁴⁸⁾

④ 중원. 7월 보름날을 속칭 백중절이라 한다. 서울 사람들은 이날 음식을 장만하여 산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논다. 『우란분경』에 의하면, 이날 목련비구가 백 가지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을 쟁반에다 갖추어서 시방대덕을 공양했다고 했다. 백중이란 백가지 음식을 말하는 것이다. 고려 때에는 부처를 숭상해서 우란분회를 행했다. 그러

47) 七月十五日俗呼爲百種 僧家聚百種花果 設盂蘭盆 京中尼社尤甚 婦女盆集 納米穀唱亡親之靈而祭之 往往僧人設卓於街路而爲之 今則痛禁而小戩 中秋翫月 九日登高 冬至豆粥 庚申不眠 亦皆古之遺意也

성현, 『용재총화』 제2권

48) 李植, 『國書』, 『澤堂先生別集』 제1권

나 오늘날에는 단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흥겹게 놀 뿐이다. 혹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옛 풍속에 이날 백 가지 곡식의 씨를 진열하였으므로 백종이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아무 근거가 없는 설이다.⁴⁹⁾

①, ②는 조선초기의 실상을 전하는 자료이다. 먼저 ①의 자료는 승려들의 招魂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주청한 날짜가 7월 16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우란분제와 관련된 내용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는 사헌부가 주청한 내용이 주목되는데, 사헌부는 당시 승려들이 도성 안의 길거리에서 부녀자들을 모아 초혼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왕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왕은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죄로 다스리라는 명을 하였는데, 이 실록 자료를 통해 1458년 무렵의 우란분제는 도성 안 길거리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에서는 당시 암자에서 행해지던 우란분제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이 무렵 우란분제는 특히 비구니 승려들이 머물고 있는 사찰에서 많이 행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지금은 엄금하여 그 풍속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당시 지배세력은 불교계의 우란분제를 금지시키려고 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는 조선 중후기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자료이다. “민간 백성들은 이를 많이 본받고 있으나,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

49) 俗稱百種節 都人盛設饌 登山歌舞爲樂 按孟蘭盆經 目蓮比丘 七月十五日具百味五果 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 今所云 百種 卽百味之謂也 高麗崇佛爲孟蘭盆會 今俗 只醉飽而已 或云 是日 舊俗 陳列百穀之種 故曰 百種 無稽之說也 柳得恭, 「中元」, 『경도잡지』

지 않는다”는 ③의 표현처럼, 우란분제는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민중들의 제의로 완전 정착되었다. 또한 ④의 자료에는 “서울 사람들은 이날 음식을 장만하여 산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논다.”는 내용과, “고려 때에는 부처를 숭상해서 우란분회를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흥겹게 놀 뿐이다.”는 내용이 있다. 우란분제가 불교의례로서의 모습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⁵⁰⁾ 이상의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우란분제는 지배세력의 억압으로 인해, 또는 민중의례와의 습합 과정을 통해 우란분제 고유의 성격을 상당 부분 상실해 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盂蘭盆齋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 불교의례 행사이며, 무려 1,500년에 가까운 선행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란분제는 각 지역의 문화, 사상 등과 융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우란분제의 의미와 설

50) 『동국세시기』에도 이러한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전한다. “우리 나라 풍속에 백종날을 亡魂日이라고 한다. 대개 민가에서는 이날 밤 달이 뜨면 채소·과일·술·밥 등을 차려놓고 亡親의 혼을 불러들여 제사를 지낸다. 安訥 李東岳의 시에 ‘시장에 채소와 과일이 한없이 많은 것을 생각하니 사람들은 도처에서 죽은 혼을 薦新하는구나’라고 했다. 충청도 풍속에 15일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거리에 나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흥겹게 놀고, 또 씨름놀이도 한다. 『여지승람』을 보라”. (洪錫謨, 「中元」, 『동국세시기』 7월)

행 역사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우란분재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우란분의 어원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우란분의 어원 연구는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들은 玄應이 편찬한 『일체경음의』의 내용, 즉 우란분의 어원은 烏藍婆拏(ullambana)이며 그 뜻은 ‘倒懸’이라는 내용을 주목하면서 그 어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란분의 어원과 관련한 뚜렷한 정설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오히려 최근의 연구는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등의 언어는 물론이고 그들 지역의 사상과 전통제의, 문화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다.

우란분재의 어원에 이어 『우란분경』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우란분경』은 매우 짧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뚜렷한 구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필자는 이 경의 중간 부분, 즉 「자자일 공양과 목련 어머니의 구제」에 관계된 내용을 특히 주목하고자 하였다. 안거를 마친 수행 대중의 자자일에 공양을 올리고, 수행대중은 공양을 올린 시주가와 7세 부모를 위해 축원을 한다는 우란분재 齋의 형태가 여기에서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우란분재의 실행 시기와 성격을 정리한 이후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우란분재의 실행 역사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우란분재가 이미 7세기 경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반면 한국의 우란분재는 고려시대 실행 기록, 즉 『대각국사문집』에 실려 있는 관련 기록이 시가상 가장 앞선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의 우란분재 역시 삼국시대부터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와 관련한 직접적

인 자료는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고려사』 『대각국사문집』 『목은시고』 등에 전하는 내용을 통해 고려시대 우란분재는 왕실과 사찰 등에서 꾸준히 설행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고려의 우란분재는 孝의 선양이라든가 自恣, 수행 승려들에 대한 공양 등의 우란분재와 관련한 기본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후 우란분재는 백중과 함께 설행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백중은 중국, 일본 등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한국 고유의 민속행사에 속한다. 백중이라는 용어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우란분재는 조선 초기부터 百種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우란분경』의 百味, 즉 음식이나 과일의 개념으로 파악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고려시대의 우란분재가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제의였다면, 조선시대의 우란분재는 민중 중심의 민간제의나 민속놀이로 그 성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우란분재에서 自恣라든가 수행 승려들에 대한 공양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배세력의 억압으로 인해, 또는 민중의례와의 습합 과정을 통해 우란분재 고유의 모습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우란분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상천도라는 특정 형태의 제의만 강조되는 모습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大覺國師文集』(『한국불교전서』 제 4책)
- 『국역 목은집』 1—12(민족문화추진회, 2005)
- 『국역 가정집』 1—2(민족문화추진회, 2006)
- 『朴通事諺解』(景印老·朴諺解合刊本, 聯經出版事業公司, 1978)
- 『洌陽歲時記』 『東國歲時記』 『慵齋叢話』 『京都雜誌』
- 『新修大正大藏經』 『일본서기』
- 『육당최남산전집』 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서울:현암사, 1973)
- 『중국대세시기 I』(서울: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3, 2006)

—저서 및 논문

- 구미래, 「백중과 우란분재의 발생기원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25(안동:비교민속학회, 2003)
- 김성순, 「동아시아의 우란분절 수용에 나타난 의미의 확대와 변용 양상—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주고받음’의 축제—」, 『종교연구』 50(익산:한국종교학회, 2008)
- 김영주, 「盂蘭盆經變相」, 『盂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대전:중앙인문사, 2000)
- 김홍우, 「우란분재의 연극 연희화 방안」, 『연극교육연구』 1(서울:한국연극교육학회, 1997)
- 박계홍, 『중보한국민속학개론』(서울:형설, 1987)

- 史在東 편, 『盂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대전:중앙인문사, 2000)
- 尙基淑, 「‘형초세시기’ 연구」, 『민속연구』 5(안동: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5)
- 서석제, 「당대 우란분회의 전개와 불교의 유·도·교 수용」, 『중국고중세사연구』 12(서울:중국고중세사학회, 2004)
- 오현화, 「불교축제로서의 우란분재」, 『어문학교육』 제24집(한국어문교육학회, 2002)
-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서울:한국민속학회, 1993)
- 이시준, 「平安時代における盂蘭盆會の考察」, 『日本文化學報』 34(대전: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 이창식, 「불교민속과 세시풍속」, 『불교민속학의 세계』(서울:집문당, 1996)
- 장춘식, 『目連說話新論』(서울:경인문화사, 2001)
- 池田澄達, 「盂蘭盆經に就いて」, 『宗教研究』 新3—1, 1926
- 清水谷恭順, 「佛說盂蘭盆經解題」(『國譯一切經』, 1934)
- 横山文綱, 「盂蘭盆考」, 『禪學研究』 49(無相大師六百年遠忌記念, 1959)
- 岩本 裕, 『目連傳説と盂蘭盆經』(東京:法藏館, 1965)
- 岩本 裕, 「‘盂蘭盆’의 原語について」, 『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佛敎論集』(東京, 1966)
- 岩本 裕, 「目連傳説と盂蘭盆」, 『佛敎說話研究』 第4卷, 地獄めぐの文學(東京:開明書店, 1979)
- 岩本 裕, 「‘盂蘭盆’의 原語とその史的背景」, 『地獄の世界』(北辰堂, 1990)
- 藤井正男, 「盂蘭盆と民俗」, 『講座日本民俗宗教』 2 仏敎民俗學(弘文堂,

The Meaning and History of the Ullambana Rite

Kim, Sang-young
Joongang Sangha University

The Ullambana Rite(盂蘭盆齋) is one of the famous Bhuddist rituals in Northeast Asia and it has been performed for almost 1,500 years in various forms, often altered by the culture and thought of each region. This paper explains the meaning and the history of Ullambana Rite.

Some Japanese scholars have traced the word Ullambana to its origin, but have not established the theory of its origin. The 『Ullambana Sutra』, which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Ullambana Rite, is a short story but well organized. This paper focused on one of the discourses of the sutra, 「Pavarana and the Buddha's instruction on how to obtain liberation for his disciple Mahāmaudgalyāyana's mother」. In fact, the discourse clearly explains the form of Ullambana Rite, in which a Buddhist disciple made food offerings to the sangha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and said a

1980)

- 金岡照光, 「敦煌本『盂蘭盆經』雜感—盂蘭盆會と目連變文に関して」, 『道教と宗教文化』(平河出版社, 1987)
- 阿理生, 「盂蘭盆會の源流と盂蘭盆の原語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 93(47-1)(東京:印度学仏教学會, 1998)
- 吉岡義豊, 「中元盂蘭盆の道教的考察」, 『道教と佛教』 第二(東京:國書刊行會, 1976)
- 吉岡義豊, 「盂蘭盆經・目連變の元型話について」, 『吉岡義豊著作集』 第2卷(五月書房, 1989)
- 入澤 崇, 「佛說盂蘭盆經成立考」, 『仏教学研究』 45(京都:龍谷大学仏教学會, 1990)
- 川崎 ミチコ, 「敦煌文書に見る盂蘭盆について(一)」, 『東洋大学文学部紀要』 2, (東京:東洋大学文学部中国哲学文学科, 1994)
- 蕭登福, 「第6章 道教中元節對佛教『盂蘭盆經』及目連傳說的影響」, 『道教與佛教』(臺北:東大圖書公司, 1995)
- 藤村 安芸子, 「行としての盂蘭盆會『三宝絵』の統一的理解を通じて」, 『倫理学紀要』 10(東京: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倫理学研究室, 2000)
- 松村 巧, 「『盂蘭盆』と『中元』」, 『唐代の宗教』(京都:朋友書店, 2000)
- 五明遠, 「中國五・六世紀盂蘭盆會之探源」(臺北:國立台灣大學 歷史研究所 碩士論文, 2001)
- 横田 隆志, 「『三宝絵』下巻『盂蘭盆』考」, 『仏教文学』 26, 2002

prayer for the offeror and his parents who had been reborn into a lower realm.

First, this study outlin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Ullambana Rite in China. Then it explained the history of Ullambana Rite in Korea. In fact, 『Daegakguksa—munjip(大覺國師文集)』 is the first Korean book that mentions that the Ullambana Rite was performed in the Koryo Dynasty.

The Ullambana Rite is likely to have been performed from the time of the Three Kingdom period in Korea, but there is no historical record that can directly prove it. In the Koryo Dynasty, the Ullambana Rite was performed by the Royal family and Buddhist priests and basic principles such as filial piety, pavarana and offering food to the Buddhist priests were inherited from the original ritual.

Since the Chosun Dynasty, the Ullambana Rite has been performed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 the day is called Baekjoong(百中) in Korea. The term, Baekjoong is not found in other nation's history and it is a Korean folklore da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Ullambana Rite was widely known as Baekjong(百種 :many kinds) because people recognized the ritual as various food offering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oncept of pavarana or the offerings to the Buddhist priest in the Chosun Dynasty's Ullambana Rite. The Ullambana Rite in Korea changed into a folk ritual

or folk game in the Chosun Dynasty. Today, it seems that only the ritual for praying for the ancestors' peaceful rest is emphasized in the Ullambatan Rite in Korea.

Key Word

Ullambana Rite, the origin of the word Ullambana,

『Ullambana Sutra』, Ullambana Rite in Koryo Dynasty,

Ullambana Rite in Chosun Dynasty